



1st Week, November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Vol. 14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그린수소, 생산, 신규, 탄소중립, 자전거
경제·관광	감귤, 한라산, 마을, 생산, 세계
지역·사회	마을, 도로, 장애인, 어촌계, 예방

※ 분석 기간 : 10월 31일~11월 06일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익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8-9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그린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탄소중립 목표 - 세계 녹색성장 전문가와의 협력 - 경제 성장과 녹색성장 연계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암해수산업 활성화 - 전통 농산물 생산 확대 - 에너지 자급자족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 시범사업 도입 - 대중교통 신규 노선 확대 - 농촌 관광 활성화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5 탄소중립 목표 -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장 - 친환경 주민 정책
	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친화 도시 조성 -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 공공 건강과 자전거 캠페인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0~11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감귤 국제박람회 - 노지감귤 생산량 감소 - 공공형 계절근로제
	한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산 겨울 관광 매력 - 한라산 탐방객 증가 추세 - 한라산 연관 관광 프로그램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화마을 워케이션 성공 사례 -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암해수산업 확대 - 제주 농업 생산 체계 개선 - 친환경 농업 확대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상품 해외 전용관 개소 - 제주 국제감귤박람회 개최 - 동남아 수출 상담회 성과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2~13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다수 봉사활동으로 어르신 돌봄 - 어촌계 불법 어업권 임대 문제 - 공동체 축제 활성화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란스러운 제한속도 표지 정비 - 추락 사고 예방 대책 - 배달 차량 도로 안전 강화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화장실 접근성 문제 - 장애인 인권 보장 방안 - 장애인 이동 지원 확대
	어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불법 어업권 대여 적발 - 마을 어장 관리 강화 - 지역 수산업 발전 지원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 활동 - 겨울철 재난 대비 훈련 - 화재 예방 캠페인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중국

- ✓ 중국 상무부가 주도로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 회사 전략적 투자 관리 방안 개정,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방법 제공, 전략적 투자의 방식으로 공개 매수, 규제 강화 및 시장 안정과 국가 안보 보장 등 중점 내용 포함
- ✓ 산시성은 디지털 무역 기업 지원을 위해 35억 위안 규모의 저금리 특별 대출을 제공 예정. 무역 용자와 비금융 보증 등을 통해 디지털 무역 발전 지원,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 계획
- ✓ 베이징시는 소비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다부처 협력 정책 설명회 개최, 이를 통해 상업 서비스 기업들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편의성 제고
- ✓ 제7회 중국 광저우 비즈니스 항공 전시회가 개막. 비즈니스 항공기와 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가 전시되며, 저고도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과 상업적 응용 사례 등 소개
- ✓ 칭하이성은 기업의 탄소 배출 정보를 기록하는 탄소 계정을 통해 92억 위안의 대출을 발행하여 저탄소 전환을 지원. 이를 통해 지역 금융 기관들은 차별화된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을 통해 탄소 저감 목표 지원
- ✓ 산시성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1가지 정책 조치를 도입. 주택 가격 제한과 금융 지원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수요 충족, 주택공급 정책 개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 방지
- ✓ 허베이성은 디지털 경제 발전 정책 추진 예정,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도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하여 효율성 제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디지털 혁신 장려
- ✓ 중국 지휘통제학회는 저고도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저고도 산업 위원회 설립. 이 위원회는 저고도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며, 드론 및 저고도 안전 시스템 구축 등 분야에 주력할 계획

- ✓ 상하이시는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경영 환경 최적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이 조례는 공정 경쟁 심사를 강화하고 규제를 간소화하여 시장 주체의 활력을 촉진
- ✓ 헤이룽장성은 저고도 경제 발전 촉진 관련 회의 개최, 정부 인사 및 산업 전문가, 기업 대표들이 저고도 경제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논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품질 발전 목표 설정
- ✓ 중국과 ASEAN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침 조약을 3년 내 체결하기로 합의, 이 조약은 무력 충돌 방지를 목표로 하며, 회원국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하지만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로 기대

○ 태국

- ✓ 태국의 새 총리는 ASEAN 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 이번 회의는 지역 안보 및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 필리핀

- ✓ 필리핀 대통령은 호주 의회에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 지역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공동 해상 및 항공 순찰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
- ✓ 필리핀은 영국과 AI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윤리적 AI 이니셔티브에 참여 제안을 받았으며, 친환경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에 집중할 기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의 총리는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무역 및 노동자 문제 논의, 양국은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
- ✓ 말레이시아의 총리는 중국과 미국 간의 균형적 관계 유지 의사를 표명, 말레이시아 및 2개 국가 간 지속적 협력을 강조

✓ 말레이시아 총리는 군사대학에서 발생한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촉구, 교육 기관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할 것임을 강조하며, 사건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

✓ 말레이시아의 두 국영 투자기업은 패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손실로 대중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재무부는 손실이 미미하다고 설명하였으나 민간에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도 개통, 이는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탄소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인도네시아는 국유기업이 보유한 1,860억 달러 규모의 부채 문제를 관리할 필요성이 강조, 정부는 자본 투입 및 합병을 검토

○ ASEAN

✓ ASEAN 재무 장관 회의에서는 지정학적 도전과 상품 가격 불안정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지속적인 협력과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

✓ ASEAN 외교 장관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미얀마 내전 문제 논의, 지역 평화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긴장 완화를 위한 협약 체결이 기대

✓ 아세안+3 노동장관 회의에서는 회복 탄력성과 혁신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논의, 회원국들은 협력 강화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

○ 일본

✓ 일본 시마네현 미사토 마을은 발리 문화와 협력하여 '발리의 마을' 프로젝트를 추진, 이를 통해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일본 여러 지자체는 지역 재생을 위해 고정자산세 수익 활용, 세수 증가로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공공시설 확충에 사용

- ✓ 일본 물질·재료 연구기구는 극저온 환경에서 수소 평가를 위한 세계 최초의 시설을 도입하여 운영 시작, 이는 수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일본 도요타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비행시험을 실시, 도시 간 비행 서비스 확대를 검토, 환경 보호와 교통 혼잡 해결을 목표로 설정
- ✓ 일본 도쿠시마현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창구를 개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 사회 간 원활한 소통을 촉진할 계획
- ✓ 일본 고베는 다목적 체육·문화 시설인 '지라이온 아레나'를 조성,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할 계획
- ✓ 오사카 메트로는 자율주행 대형 버스 시험 운행 시작, 이 버스는 자율주행 레벨 4까지 검토하여 실용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계획. 오사카 역사박물관과 주요 역을 연결하는 순환 노선으로 운행될 예정이며,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
- ✓ 홋카도는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고정자산세 수입이 증가, 확보된 자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
- ✓ 시코쿠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이마바리 조선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외국인 노동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다문화 공생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 실시
- ✓ 일본 고등전문학교의 설립이 확대, 지역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고등전문학교는 일본 독자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인재 육성을 추진할 계획

Contents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1 언론분석: Word Cloud

- 2024년 10월 31일~11월 6일 기간, 제주 주요 7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 분야의 관련 보도 총수는 약 807건임
 - 이 중 정치·행정 분야 뉴스 273건, 경제·관광 분야 187건, 지역·사회 분야 347건임
 - * 제주 대표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273건 정치·행정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그린수소, 생산, 신규, 탄소중립, 자전거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그린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탄소중립 목표 · 제주, 2035년까지 아시아 최초 탄소중립 달성 목표 수립, 기후위기 대응 모델로 자리매김 ·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생산이 주요 전략으로 추진 - 세계 녹색성장 전문가와의 협력 · 제주, 세계은행 등 국제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방안 논의 ·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실행 - 경제 성장과 녹색성장 연계
------	---

정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 그린수소 기술과 녹색성장 비전 제시 · 친환경 관광 모델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암해수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암해수에서 미네랄 추출물 생산하여 해외 수출 강화 목표 · 글로벌 식품 시장 진출로 제주 경제 경쟁력 제고 - 전통 농산물 생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감귤 등 전통 농산물 생산 확대 및 수출 강화 방안 추진 · 국제 품질 기준에 맞춘 수출 증대 목표 - 에너지 자급자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률 제고 · 태양광 및 풍력 시설 확장으로 재생 에너지 생산량 증대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 시범사업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 주도의 자치 시범사업 추진으로 주민 참여 확대 · 지역별 자율적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대중교통 신규 노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신규 대중교통 노선 확대 · 탄소 배출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 - 농촌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모델 개발 및 에코 투어리즘 확대 ·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 제공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5 탄소중립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203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로 환경 책임 강화 · 대중 참여형 탄소 저감 캠페인과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실행 -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장 계획 가속화 ·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탄소중립 프로젝트 확대 - 친환경 주민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탄소 배출 감소에 동참할 수 있는 정책 도입 · 교통 및 가정 에너지 사용의 탄소 감축 인센티브 제공
	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친화 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주차 시설 확충을 통해 자전거 친화 도시 목표 · 교통 혼잡 완화 및 친환경 교통 수단 장려 -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도입 · 저탄소 관광 촉진과 친환경 교통 수단 제공 - 공공 건강과 자전거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공공 건강 증진 캠페인 추진 · 환경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일상적 자전거 이용 권장

- 187건 경제·관광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감귤, 한라산, 마을, 생산, 세계 등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Cloud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p>감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감귤 국제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감귤을 통해 세계 평화의 섬 이미지 홍보 · 감귤 홍보관 및 산업관 운영, 감귤 수출 촉진 목표 - 노지감귤 생산량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영향으로 인한 감귤 생산량 감소, 가격 상승 예상 · 감귤 품질 개선 및 작은 크기의 감귤 출하 기준 완화 - 공공형 계절근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해 감귤 수확 인력난 해소 · 농가와 농협 간 협력을 통해 인건비 부담 감소
<p>한라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산 겨울 관광 매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산의 겨울철 설경과 상고대가 탐방객에게 인기 · 한라산 탐방 전후로 다양한 지역 상점 이용 증가 - 한라산 탐방객 증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과 10월 탐방객이 가장 많으며 탐방객 수 꾸준히 증가 · 겨울철 한라산 방문객을 위한 안전 및 편의시설 필요 - 한라산 연관 관광 프로그램

경제·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방 전후 휴식 공간과 로컬 음식점 이용 활성화 · 자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관광 매력 홍보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화마을 워케이션 성공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휴 공간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전환, 경제적 효과 창출 · 마을 내 관광 모델로 워케이션 활성화 -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마련 · 공실 점포 활용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예정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레걷기 축제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관광 행사 운영 ·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 유치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암해수산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암해수 활용한 제품 생산과 수출 확대 · 제주의 농산물과 특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 제주 농업 생산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 농가 지원을 통해 인력난 및 비용 문제 해결 - 친환경 농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가능한 농업과 친환경 제품 생산 목표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기 농기계 도입 확대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상품 해외 전용관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카르타에 제주 상품 전용관 개소, K-뷰티와 K-푸드 홍보 · 동남아 시장 공략을 통한 제주 상품 브랜드 가치 증대 - 제주 국제감귤박람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을 통한 세계 평화 홍보와 수출 상담회 진행 · 감귤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시 및 행사 - 동남아 수출 상담회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와 대만에서 수출 상담회 통해 실질 계약 체결 · 직항 노선을 활용해 제주 제품 수출 비용 절감

- 347건 지역·사회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마을, 도로, 장애인, 어촌계, 예방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p>마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다수 봉사활동으로 어르신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개발공사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협업으로 지역 어르신에게 식사 제공 · 경로당에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과 식사 나눔 행사 진행 - 어촌계 불법 어업권 임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장이 마을 어장을 비회원에게 불법 임대해 수익 창출 · 해경 수사로 불법 어업권 임대 행위 적발 및 검찰 송치 - 공동체 축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각지에서 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열림 · 지역 경제와 문화 홍보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
<p>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란스러운 제한속도 표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월령교차로 인근 제한속도 표지판 혼란 문제로 재정비 실시 · 교통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표지판 정비와 시정 조치 완료 - 추락 사고 예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 시설물 점검 및 개선 추진 · 사고 빈발 구역의 안전 장치와 표시 강화로 예방 활동 강화 - 배달 차량 도로 안전 강화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달용 오토바이와 차량을 위한 도로 안전 조치 강화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 제한과 안전장치 보완 추진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화장실 접근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접근성 부족으로 휠체어 이용 불편 · 진입로와 내부 시설 개선 필요성 제기, 점자 표지판 설치 부족 지적 - 장애인 인권 보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시설 개선 계획 마련 · 공공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와 주기적 점검 필요성 강조 - 장애인 이동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특수 교통 서비스 개선 계획 · 장애인 전용 차량과 운전자 지원 프로그램 강화 방안 추진
	어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불법 어업권 대여 적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어업자에게 마을 어업권을 불법 임대한 사례 적발 · 불법 어업권 대여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필요성 강조 - 마을 어장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어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 강화 · 어촌계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개선 필요 - 지역 수산업 발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 체계 구축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 및 하천 정비 실시 · 제주 지역의 재난 대비책 강화, 주민 안전성 확보 노력 - 겨울철 재난 대비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긴급 구조 훈련 실시 · 소방, 경찰, 군부대 협력으로 재난 대응 체계 점검 - 화재 예방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한 날씨에 대비한 화재 예방 활동 강화 · 주민 대상의 화재 대비 교육과 소방 시설 점검 시행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자의 전략적 투자 관리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상무부와 5개 부처는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 회사 전략적 투자 관리 방안 개정 발표. 이번 개정은 외국 자연인 투자 허용, 자산 요건 완화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투자 조건 완화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 설정 - 개정 방안은 외국 자연인 상장 회사 전략적 투자 가능하게 하며, 자산 요건 낮추어 비지배 주주 투자 유입 촉진. 또한, 전략적 투자 방식으로 공개 매수 포함하여 외국인 투자자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 가능 - 새로운 방안은 규제 및 안전성 강화 통해 외국인 투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 안정 및 국가 안보 보장 중점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시성, 디지털 무역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정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시성은 디지털 무역 기업 지원을 위해 첫 단계로 35억 위안 규모 저금리 특별 대출 제공 결정. 이 대출은 무역 용자, 구매자 및 판매자 신용, 비금융 보증 등을 통해 디지털 무역 발전 지원 목표 설정 - 디지털 제품, 서비스, 기술, 데이터 및 구독 무역 등 디지털 무역 5개 주요 분야 중심으로 기업 금융 지원 시스템 강화하여 고품질 성장 도모. 이를 위해 금융 지원 체계 구축, 협력 메커니즘 수립,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조치 마련 - 산시성은 디지털 무역 환경 개선하고, 디지털 무역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하며 내륙 개방 확대 전략 통해 지역 경제 성장 촉진

지역**제목 및 주요 내용****중국**

- 베이징시, 소비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 위한 정책 해석 진행
 - 베이징시는 상업 서비스 기업들이 소비 친화적 환경에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다부처 협력하여 정책 해석 진행. 이로써 기업들은 다양한 상권 조성
 - 베이징시 공안국과 시장 관리국은 대규모 이벤트 안전 허가를 “전 과정 온라인 처리“로 전환하여 기업 편의성 제고. 이를 통해 255차례 대형 행사 원활한 안전 허가 절차 제공
 - 각 부처는 정보 검증, 병렬 승인 등 원스톱 처리 시스템 통해 업무 처리 기간 대폭 단축하여 기업 만족도 향상 및 베이징시 소비 및 상업 환경 질적 향상 촉진

- 중국 광저우 비즈니스 항공 전시회 개막, 저고도 경제 관심 증가
 - 제7회 중국 광저우 비즈니스 항공 전시회 개막하여 저고도 경제 관심 집중됨. 전시회에서는 비즈니스 항공기, 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 등 다양한 저고도 항공기 전시
 - 저고도 경제 이번 전시회 주요 관심사로, 저고도 산업 새로운 가능성 및 상업적 응용 사례 논의됨. 저고도 산업 발전 위한 각종 정책 및 기업 간 협력 방안 제시
 - 중국 항공 소재 제조, 응급 구조, 저고도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업체 참가하여 저고도 경제 활성화 위한 교류의 장 마련. 이를 통해 중국 내 저고도 산업 성장 가속화 발판 기대

- 칭하이성, 기업에 대한 탄소 계정 구축으로 92억 위안 대출 지원
 - 칭하이성은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정보 기록하는 기업 탄소 계정 통해 총 92억 위안 대출 발행. 이는 저탄소 전환 지원 기업들에게 이자 절감 효과 제공
 - 지역 금융 기관들은 탄소 감축 효과 큰 기업에 차별화된 금융 혜택 제공하여 녹색 금융 활성화 도모. 이를 통해 506개 기업에 탄소 계정 구축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에너지 및 전력 자원 활용 통해 탄소 배출량 줄이는 동시에 기업 환경적 책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 통해 탄소 저감 목표 지원
	<p>○ 산시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21가지 정책 조치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시성은 부동산 시장 침체 방지 및 안정적인 발전 유도 위해 21가지 구체적 조치 도입. 이에 따라 주택 가격 제한, 판매 제한, 구매 제한 등 규제 해제하여 자율적인 시장 조정 가능 - 금융 지원 확대하여 주택 대출 금리 낮추고, 무주택자 및 주택 개선 수요 대응 정책 마련.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수요 충족 가능 - 재고 조절 위한 새로운 부동산 공급 관리 체계 마련하여 기존 자원 활용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 목표 설정. 부동산 시장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 위한 기반 강화
	<p>○ 베이성, 디지털 경제로 고품질 발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베이성은 베이징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통한 고품질 발전 촉진하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함으로써 데이터 산업 빠른 성장 도모 - 산업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접목하여 산업 효율성 제고하고 자원 배치 최적화.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 융합 가속화 -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 통해 디지털 전환 촉진하며, 허베이성 내 주요 기업들 디지털 혁신 장려
	<p>○ 저고도 산업 발전 위해 중국 지휘통제학회 저고도 산업 위원회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지휘통제학회는 저고도 산업 발전 지원 위해 저고도 산업 위원회 설립. 이 위원회는 학술 교류, 표준 제정, 기술 혁신 플랫폼 역할 통해 저고도 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할 예정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고도 경제는 경제 전환 핵심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상업화하고 생태계 조성 위한 전략 제시. 특히 드론, 공중 교통 관리, 저고도 안전 시스템 구축 등 분야에 주력할 계획 - 내년 9월에는 '저고도 경제 신미래' 주제로 국제 저고도 산업 박람회 개최하여 산업 발전 교류 플랫폼 마련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 경영 환경 최적화 조례 개정 시행으로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시는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위해 '경영 환경 최적화 조례' 개정하여 시행. 이 조례는 공정 경쟁 심사 강화, 노동 분쟁 해결 메커니즘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요구사항 반영 - 조례는 기업 경영 자율권 보장하며 규제 간소화 통해 시장 주체 활력 촉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상하이는 2023년 신규 창업 주체 53만 건 초과 - 기업 경영 장소 등록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 개선안 추가하여 대형 체인 기업 경영 확장에 편의성 제공하며, 행정 검사 통합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이룽장성, 저고도 경제 발전 촉진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이룽장성은 저고도 경제 발전 위해 회의 개최하고, 다양한 저고도 산업 분야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 참여하여 발전 전략 논의함. 저고도 경제 신성장 동력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 저고도 경제 기초 산업으로서 농업 보호, 응급 구조, 저고도 관광 등 다양한 응용 분야 논의됨.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 품질 발전 목표 설정 - 회의에서는 저고도 경제 산업 연맹 설립 및 저고도 경제 관련 주요 프로젝트 협약식 진행, 이를 통해 헤이룽장성 저고도 경제 한 단계 도약 효과 기대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ASEAN, 남중국해 분쟁 방지를 위한 불가침 조약 3년 내 체결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ASEAN 회원국들은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영토 분쟁을 막기 위해 3년 내 불가침 조약 체결하기로 합의. 이 조약은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 방지 목표 설정 - 협상 지침에 따라 중국과 ASEAN은 남중국해에서의 외국 군사 활동 제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일부 회원국은 조약이 법적 구속력 갖도록 주장 -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관계 속에서, ASEAN은 지역 평화와 자유항행 보장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분쟁 예방 목표 설정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신임 총리, ASEAN 정상 회담 불참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의 새 총리 스텐타 타위신은 일정 문제로 인해 ASEAN 정상 회의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 이번 회의는 남중국해 문제 및 미얀마 사태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 - ASEAN 정상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 지역 안보 및 경제 협력 방안 논의하며, 미얀마 분쟁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모색 - 태국은 외교적 접근 통해 ASEAN 결속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협력 및 대화의 장 넓히기 위한 지속적 노력 표명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대통령, 호주 의회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호주 의회에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중요성 강조하며, 중국 위협으로부터 지역 안보 및 법치주의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 - 필리핀과 호주는 2023년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공동 해상 및 항공 순찰 시행하며, 지역 평화 및 안전 위한 협력 강화하고 있음. 이번 회담 통해 두 나라 해양 협력 및 사이버 안보 협정 새로 체결 - 마르코스는 남중국해 평화적 보전을 위한 국제 질서 중요성 역설하며, 필리핀은 주권 지키기 위해 외세 간섭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

지역**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영국과 AI 관련 부문 협력 강화**

- 영국은 필리핀에 세계 약 60개국이 참여하는 윤리적 AI 이니셔티브(Ethical AI Initiative)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며, AI 개발 및 적용의 윤리적 측면 강조함. 이 프로그램은 AI 기술이 인간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
- 영국의 런던 시장경은 필리핀의 기후 목표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 금융 및 수소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 제안함. 이를 통해 필리핀은 친환경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됨
- 영국과 필리핀은 광업, 국방,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파트너십 모색하며, 영국은 필리핀에 자국 우주 보호 이니셔티브(Space Protection Initiative) 참여 권장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총리, 방글라데시 방문하여 무역 및 노동자 문제 논의**

-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임시 지도자인 유누스와 만나 무역 및 노동자 문제 논의함. 방글라데시는 ASEAN과 협력하여 로힝야 난민 문제 해결 목표 설정
- 양국은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목표로 하며,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로힝야 난민 문제 해결책 모색 중임. 말레이시아는 방글라데시의 두 번째 큰 교역 상대국이며, 많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말레이시아에서 근무 중임
-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노동자 권리 및 교역 확대 방안 논의, ASEAN 의장국으로서 방글라데시 역할 지원

○ **말레이시아 총리, 중국과 미국의 균형적 관계 유지 의사 표명**

-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중국과 미국 간 경쟁 상황 속에서 양국과 협력 지속할 것임을 밝혔으며, 양국 간 갈등 해소되기를 희망
-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안와르 총리는 중국과의 경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p>제적 협력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미국 균형 있게 대하는 외교 정책 유지할 것임을 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말레이시아는 중동 문제에 대해 양국 관여 기대하며,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 평화적 해결 위한 노력에도 참여 <p>○ 말레이시아 총리, 군사대학 내 괴롭힘 사건에 엄중 대응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군사대학에서 발생한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강력한 대응 촉구하며, 교육 기관 내 폭력 및 괴롭힘 문화 근절할 것 주문 - 최근 군사대학에서 발생한 사건은 고위 학생이 후배에게 뜨거운 다리미 사용한 괴롭힘 사례로, 사회적 큰 파장 일으키며 개선 요구 증가 - 안와르 총리는 괴롭힘 문화 용인되는 사회적 구조 비판하며, 교육부에 이 문제에 대한 엄격한 조치 요구함. 군 당국도 철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약속
	<p>○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기업, 패션 플랫폼 투자 손실에 대해 해명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의 두 국영 투자기업이 패션 전자상거래 플랫폼 FashionValet에 대한 초기 투자에서 큰 손실 기록하며, 대중 비판 받고 있음. 두 기업은 2018년에 총 4700만 링깃 투자했으나, 2023년 말 매각 당시 약 93% 손실 초래 -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이러한 손실이 국영기업 전체 수익에 미미한 영향 미친다고 설명했으나, 투자 결정 적절성에 대한 의문 제기 - 대중 관심 집중되자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두 기업에 대해 명확한 해명 요구하며, 국영기업 투자 전략 투명성 강화 요구
인도네시아	<p>○ 인도네시아, 중국 자본으로 동남아 최초 고속철도 개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동남아 최초 고속철도 개통함. 자카르타와 반둥 연결하는 이 고속철도는 이동 시간 3시간에서 40분으로 단축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프로젝트는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로 하며,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 기술 이전 협약 통해 향후 고속철도 자립화 기대됨. 철도는 지진 및 홍수 등 긴급 상황 대비 안전 시스템 갖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고속철도가 경제 성장과 교통 현대화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자바 섬 전역 연결하는 장기적 고속철도 네트워크 계획 추진 <hr/> <p>○ 인도네시아, 1,860억 달러 규모 국유기업 부채 문제 직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대통령은 국유기업이 보유한 1,860억 달러 규모 부채 문제 직면하여 이를 관리할 필요성 강조함. 이전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지출한 비용이 부채 증가에 영향 미침 -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시기에 추진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다수 국유 건설업체들이 부채 쌓아 국유기업 재정적 부담 가중 - 정부는 투자자 신뢰 회복 및 경제 성장 위한 전략으로 국유기업 자본 투입, 합병, 전문화 검토하고 있음
<p>ASEAN</p>	<p>○ ASEAN 재무 장관 회의, 지정학적 도전과 가격 불안정에 대해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 재무 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라오스에서 회의 열고, 지정학적 긴장 및 불안정한 상품 가격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논의함. ASEAN 회원국 경제 성장이 회복 중이지만 여전히 리스크 존재 - 라오스는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 등 장기적 경제 문제 준비하며, ASEAN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 도모하고 있음. 또한, 금융 통합 위한 QR코드 기반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도입 협약 체결 - ASEAN 경제 통합 위한 지속적 노력 진행 중이며, 각국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 배출 절감 방안 논의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AS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 외교 장관 회의, 남중국해 및 미얀마 사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 외교 장관들은 라오스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및 미얀마 내전 문제 중점 논의함.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동참하여 지역 평화 및 협력 방안 모색 -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ASEAN 회원국 간 의견 차이 존재 하지만, 중국과 필리핀은 최근 분쟁 해소 위한 협약 체결하며 긴장 완화 모색 - 미얀마 사태에 대해 ASEAN은 5개 항 평화 합의안 이행 촉구하며, ASEAN 특사가 미얀마와 대화 촉진 위해 적극적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회복 탄력성과 혁신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에서 제13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개최하여 지역 회복 탄력성 및 혁신 통한 문제 해결 목표 설정 -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문제 논의 되었으며, 아세안 국가들은 노동환경 개선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위해 협력 강화 동의 - 장관들은 아세안+3국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 강조하며,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노동환경 개선 약속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시마네현 미사토 마을,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발리의 마을’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마네현 미사토 마을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 문화와 협력하여 ‘발리의 마을’ 프로젝트 추진함. 인도네시아와의 교류 바탕으로 마을 활성화 및 지역 발전 도모 - 미사토 마을은 발리 전통의상과 음식, 문화 요소 생활에 적용 하며, ‘발리의 날’ 지정해 축제 여는 등 관광 및 문화 교류 촉진. 이를 통해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또한, 마을 내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과 농업 시스템 도입해 젊은 층의 이주 장려하고, 인구 유입 목표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실행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지역 재생을 위한 일본 지자체의 고정자산세 증가 활용**
 - 일본 여러 지자체가 지역 재생 위해 지가 상승으로 인한 고정 자산세 수익 활용하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 약 90% 세수 증가 기록함. 일부 지자체는 증가한 세수 통해 아동 복지 및 교통 인프라 개선 투자
 - 예를 들어, 도치기현 미부마치는 기업 유치 및 대형 상점 유치 통해 지난 10년간 고정자산세 수익 59% 증가함. 이러한 세수는 지역 주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공공시설 확충에 사용
 - 증가한 세수는 국가지원 감소 영향 완화하며, 일부는 독자적인 지역 개발 프로그램 재투자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 목표로 설정
- **일본 물질·재료 연구기구, 극저온 고압 하 수소 소재 평가 설비 세계 최초 도입**
 - 일본 물질·재료 연구기구는 영하 253도에서 고압으로 수소 평가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시설 구축하여 운영 시작함. 이 시설은 액화 수소 저장 및 운송에 필요한 금속 소재 특성 측정
 - 극저온 환경에서 수소에 노출되는 금속 성질 평가하여 수소 에너지 활용 위한 고성능 소재 연구 지원하고 있음. 이를 통해 탈탄소화 사회 구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수소 소재 평가 시스템은 자동차와 항공기 엔진 포함한 다양한 분야 소재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수소 에너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 할 것으로 전망
- **일본 도쿄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험 비행 실시**
 -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도쿄에서 시즈오카까지 약 25분간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험 비행 성공적으로 실시함. 이 시험 비행은 도요타가 투자한 미국 스타트업 조비 아비에이션의 전기 수직 이착륙 기체로 이루어짐
 - 시속 32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 기체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활용 가능성 높이며, 도심 교통 혼잡 해결 및 환경 보호 목표로 설정
- 도요타는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 시대 열어갈 계획이며, 향후 도시 간 비행 서비스 확대 검토

○ 일본 도쿠시마현, 외국인 고용 지원 창구 개설

- 일본 도쿠시마현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 지원 위한 상담 창구 개설함. 이 창구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 고용 계약, 노동 환경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
- 고용 상담 서비스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강화할 계획
- 도쿠시마현은 이러한 지원 활동 통해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 사회 간 원활한 소통 촉진하고, 고용 안정성 제고 가능

○ 일본 고베, 다목적 체육·문화 시설 ‘지라이온 아레나’ 개장 예정

- 일본 고베에 2025년 개장 목표로 한 지라이온 아레나 조성될 예정임. 이 아레나는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로 설정
- 시설 내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 마련될 예정이며, 방문객들에게 지속적인 경험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함. 고베 지역 스포츠팀 홈 경기 외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 유치 계획
- 아레나 주변에는 지역 브루어리 등 커뮤니티 시설 설치될 예정으로, 고베 새로운 커뮤니티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

○ 오사카 메트로, 자율주행 버스 운행 개시

- 오사카 메트로는 자율주행 대형 버스 11월 10일부터 약 1년 동안 오사카 성 동부 지역에서 시험 운행할 예정임. 이번 시도는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 레벨 4까지 검토하며 실용성과 안전성 입증 촉진
- 버스는 오사카 역사박물관, 교바지역, 모리노미야역 등 연결하는 순환 노선과 교바지역에서 e METRO MOBILITY TOWN 체험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장까지 왕복 노선으로 운행함. 이번 운행에서는 자율주행 레벨 2 적용하여, 운전자가 최소한의 제어만 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버스 운행은 오사카 메트로 첫 도전으로, 자율주행 기술 발전 촉진 위해 다양한 테스트 및 분석 병행될 예정
	<p>○ 일본 북해도, 재생 가능 에너지 투자로 고정자산세 수입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해도는 태양광과 수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고정자산세 수입 증가하고 있음. 이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GX) 투자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 기여 - 2022년 기준, 북해도 고정자산세 수입 약 3,000억 엔에 달하며, 10년 동안 약 11.8% 증가함. 이는 숙박시설과 별장지 등의 설비 확충에 따른 결과로, 세수 증대가 인바운드 관광 수요 증가를 촉진 가능 - 북해도는 세수 증가로 확보된 자금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위한 다양한 지역 활성화 방안 추진
	<p>○ 시코쿠, 외국인 인력 유입 증가와 일상 속 공생 문화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코쿠 지역 외국인 노동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마바리 조선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음. 2023년 10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 역대 최대 기록하며 다문화 공생 일상화되고 있음 - 에히메현에서는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증가하였고, 그 중 이마바리 지역 조선업 비중 커 지역 외국인 근로자 3분의 1 차지하고 있음. 조선사 신라이시마 독크는 코로나 이전 수준 넘는 외국인 근로자 확보 목표 설정 - 고치현에서는 은행들이 외국인 인력 채용 지원 협력 체결하여 외국인 채용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이와 같은 노력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다문화 공생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음
	<p>○ 고등전문학교(高専), 지역 신산업 및 인재 육성 중심 역할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고등전문학교(고선) 설립에 대한 움직임 지방 자치단체들

지역**제목 및 주요 내용**

사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고선 제로 현’으로 불리는 시가 현과 야마나시현이 고등전문학교 설립 준비 중이며, 우수한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 육성 주력

- 고등전문학교는 일본 독자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1961년에 개교하여 일본 전역에 58개 설립됨. 이 교육 체계는 기술 인재 배출하며 일본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고, 2023년에는 20년 만에 첫 사립 고등전문학교 개교
- 디지털 인재 중요성 강조됨에 따라 고등전문학교 설립 및 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 정부들은 이를 통해 지역 새로운 산업 및 인재 육성 기반 확립할 예정